

日本 要法寺版 및 涸轍書院版 古活字的 印刷技術 研究

A Study on Early Typography of Yohozi Edition and
Kotetsusyoin Edition in Japan

曹 炯 鎮 (Cho, Hyung-Jin)*

◁ 목 차 ▷

- | | |
|------------------------|-------------------|
| 1. 緒 論 | 5. 要法寺版 古活字的 印出技術 |
| 2. 要法寺版 및 涸轍書院版의 概要 | 6. 要法寺版 古活字的 印刷技術 |
| 3. 要法寺版 古活字的
活字製作技術 | 7. 結 論 |
| 4. 要法寺版 古活字的 組版技術 | <참고문헌> |

< 초 록 >

(1) 要法寺版이란 京都에 소재한 要法寺에서 1600년부터 1643년경까지 木活字로 인쇄한 17종의 판본을 지칭한다.

涸轍書院版이란 京都 교외의 涸轍書院에서 1604년부터 1608년까지 木活字로 인쇄한 6종의 판본을 지칭한다.

(2) 活字의 재질은 목재이다. 製作技術 수준은 필서체의 필의를 표현하고 있으나, 세련되지 못하다. 보각한 활자가 있다. 기술 수준은 중상급.

(3) 組版技術은 字跡의 行列이 대체로 가지런한 편인데, 小字는 오차가 다소 크다. 빼 떨어진 문자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고, 墨色 濃淡은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기술 수준은 중중급.

(4) 印出技術은 목색의 농담 차이, 墨汁의 번짐, 잡목과 이중 인출 등이 다소 보일 만큼 균정하지 못하다. 기술 수준은 중중급.

(5) 印刷技術 수준은 별다른 특징이 없는 중중급에 해당한다.

要語: 일본 요법사판, 학철서원판, 고활자, 활자제작기술, 조판기술, 인출기술, 인쇄기술

* 강남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chohj@kangnam.ac.kr)

접수일: 2013년 8월 28일 최초심사일: 2013년 9월 7일 심사완료일: 2013년 9월 28일

<ABSTRACT>

(1) Yohozi edition refers to seventeen editions printed in wooden type at Yohozi temple in Kyoto from 1600 to around 1643.

Kotetsusyoin edition refers to six editions printed in wooden type at Kotetsusyoin located in the suburb area of Kyoto between 1604 and 1608.

(2) The type was made of wood. The type-making technique reflects script writing style, yet its quality is not sophisticated. Some types were added later. Its technical quality is around upper-middle grade.

(3) The typesetting technique shows evenly aligned vertical and lateral stripes of character trace, yet there is a substantial variation in the trace of small characters. The extent of skewedness varies across characters and the tone of ink color is highly inconsistent. Its technical quality is around middle-middle grade.

(4) The brushing technique shows certain inconsistency in the thickness of ink color and spreads of chinese ink, and there are some incidental touches of ink and double printing. Its technical quality is around middle-middle grade.

(5) The type printing quality is around middle-middle grade, with no specific distinction.

Key words: Japanese Yohozi Edition, Kotetsusyoin Edition, early type, type-making technique, typesetting technique, brushing technique, typography

1. 緒論

일본의 고헬자 인쇄는 1590년 서양과 1593년 조선으로부터 그 기술이 전래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慶安년간(1648-1651)까지 62년간 京都 지방을 중심으로 서적 간행에 이용되었다.

일본의 고헬자 인쇄는 한국이나 중국의 고헬자 인쇄와 비교하면, 유사한 점도 있지만 일본만의 특징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의 연구자에 의하여 연구된 일본의 고헬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¹⁾ 즉 아직까지 일본의 고헬자에 대한 연구 영역은 불모지인 실정이다. 따라서 동양 삼국 고헬자 인쇄의 진일보한 비교 연구에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을 것이다.

일본의 고헬자 인쇄는 크게 위정자 및 정부기관에 의한 인쇄, 京洛과 지방의 사찰에 의한 인쇄, 서사 및 개인에 의한 인쇄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京洛의 대표적인 사찰인 要法寺와 京洛 교외의 涸轍書院에서 간행한 고헬자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要法寺版과 涸轍書院版을 묶어서 연구하는 이유는 요법사에서 사용되던 활자가 학철서원으로 이관되어 계속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판본의 감정은 문헌 자료나 일본 소장처의 목록에 저록된 것을 따르되, 오류가 분명한 경우는 필자가 수정하였다. 연구방법은 관련 문헌을 통한 문헌연구법과 고헬자본 실물을 직접 분석하는 직관법 등을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요법사판과 학철서원판의 개요·활자제작기술·조판(인판의 제작)기술·인출기술, 그리고 이를 종합한 인쇄기술의 수준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인쇄 기술 부분을 특히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이유는 일본에서도 문화사적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기술사적 연구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1) 曹炯鎭, “日本 駿河版 銅活字의 製作過程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24輯(2002. 12), 89-129.; 曹炯鎭, “日本の 駿河版은 朝鮮의 活字인가?,” 『書誌學研究』 第26輯(2003. 12), 1-23.; 曹炯鎭, “日本 叡山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書誌學研究』 第53輯(2012. 12), 85-110.; 曹炯鎭, “日本 勅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書誌學研究』 第54輯(2013. 6), 103-136.

인쇄기술 수준의 분석을 위한 표준은 필자가 이미 발표한 평가 요소를 이용하였다.²⁾ 인쇄기술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판본을 각각 분석한 것을 모아서 요법사판 전체를 집단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평가 표준에 나타난 평가 요소의 정도와 수량을 일일이 수치로 표시하지 못하고, 전체적인 정황을 기술하였다.

2. 要法寺版 및 涸轍書院版의 概要³⁾

2.1 要法寺版과 涸轍書院版의 定義

요법사판이란 京洛에 소재한 요법사에서 간행한 판본을 지칭한다. 학철서원판이란 京洛 교외에 소재한 학철서원에서 간행한 판본을 지칭한다.

2.1.1 要法寺版과 涸轍書院版의 刊行 主體

慶長 2년(1597) 後陽成天皇의 勅版과 慶長 4년(1599) 德川家康의 伏見版 직후, 慶長 5~6년(1600~1601)경부터 京洛의 여러 사찰들은 경쟁적으로 활자 개판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 중 가장 왕성했던 사찰로는 要法寺와 本能寺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사찰은 이미 公家나 武家 측과 긴밀히 교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방각본과도 관련되어 근세의 인쇄문화 발전에 대한 기여도 매우 컸다.

(1) 要法寺版: 京洛의 여러 사찰 중 가장 먼저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출판을

2) 曹炯鎮, “古活字 印刷技術의 評價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25輯(2003. 6), 369-406.

3) 川瀨一馬, 『增補古活字版之研究』(東京: 共立社, 1967), 255-277, 701-709.; 木宮泰彦, 『日本古印 刷文化史』(東京: 富山房, 1975), 426-433.; (日本)國立國會圖書館圖書部編, 『國立國會圖書館所藏 古活字版圖錄』(東京: 汲古書院, 1990), 408.; 田淵正雄, “新出の 涸轍版『醫方大成論』をめぐって,” 『ビブリア』 第115號(2001. 5), 34-39. 문화사적인 내용은 이들 자료를 주로 참고하였다. 주의할 점은 川瀨一馬가 『古活字版之研究』를 집필하기 위하여 古活字版을 조사할 때, 연구 노트를 작성하지 않고 기억에 의한 결과 곳곳에서 발견되는 오류다.

한 곳은 要法寺이다. 요법사의 개관사업의 중심에는 요법사 塔頭本地院의 世雄房日性, 범명 圓智⁴⁾가 있었다. 圓智는 自撰書를 비롯하여 선인들의 저술도 개관하였다. 圓智의 간기는 없고, 단순히 “要法寺內開版”이라고만 되어 있는 판본도 다른 인물의 참여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圓智가 관여한 것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圓智가 입적한 후에는 요법사에서 서적이 거의 간행되지 않았던 점에서 요법사판은 대부분 圓智의 관여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 涸轍書院版: 학철서원은 초기에 “涸轍書堂”이라고 칭하였는데, 주지인 涸轍祖博이 京洛 교외에 설립한 사찰이다. 涸轍祖博은 足利學校에 在籍修學하였던 禪僧이다. 같이 수학하였던 동문으로는 德川家康의 부하인 閑室元佶(호는 三要)와 요법사의 圓智 등이 있다. 直江兼續의 부름으로 임진왜란에 출병하기도 하였다. 학철은 서원 운영에 필요한 서적을 간행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활자를 빌려서 사용하다가 慶長 13년(1608)부터는 요법사판 활자를 완전히 인수하여 서적을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2.1.2 要法寺版과 涸轍書院版의 刊行 地域

(1) 要法寺版: 圓智는 자신이 거거하던 요법사 내의 本地院에서 개관사업을 수행하였다. 여기에서 생산된 서적은 요법사판이 되지만, 지인의 요청으로 출타하여 요법사판이 아닌 서적의 간행에도 장인으로서 협력하기도 하였다.

(2) 涸轍書院版: 학철은 서원 설립 초기에는 小瀨甫庵⁵⁾의 활자를 빌려서 서적을 간행하였고, 慶長 13년부터는 요법사판 활자를 인수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모든 간행 작업이 학철서원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4) 日性の 전기에 관하여는 『大日本史料』 第12篇 13. 718-726, 慶長 19년(1614) 2월 26일조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日性은 天文 23년(1554) 京洛에서 출생, 범명은 圓智, 30세에 『藏經 纂要』 100권을 집대성. 본문에서 서술한 自撰自刊과 校刊 등 외에 未刊 저술도 수종 있다(日性 著述目錄 要法寺答書). 慶長 19년 2월 26일 입적, 향년 61세.

5) 豊臣秀次の 侍醫.

2.1.3 要法寺版과 涸轍書院版의 刊行 時期

(1) 要法寺版: 요법사판 고헌자 인쇄는 慶長 5년 『法華經傳記』의 간행을 시작으로 慶長 19년 2월 圓智가 입적하기 직전인 慶長 18년(1613) 『天台四教儀集註』까지 이어진다. 거의 예외적으로 寬永年間(1624-1643)에 1종이 간행되었다. 이 기간 중에 간행한 서적은 모두 10종 17판본이 있는데, 4종을 간행한 慶長 10년(1605)이 가장 활발하였다.

(2) 涸轍書院版: 학철서원판은 慶長 9년(1604) 甫庵판 활자로 『醫方大成論』과 『十四經發揮』의 간행을 시작하였고, 요법사판 활자로는 慶長 10년에 1종, 慶長 13년에 3종의 서적을 간행하기까지 이어졌다.

2.1.4 要法寺版과 涸轍書院版의 刊行 手段

(1) 要法寺版: 圓智가 개관한 요법사판 서적의 대부분은 활자인본으로 현존본의 목적을 감별하면 모두 목활자본이다. 목판본 『論語集解』와 慶長 16년(1611)의 『重撰倭漢皇統編年合運圖』는 활자본을 저본으로 복각한 것이다. 요법사판의 간행에 사용된 목활자는 慶長 12년(1607)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구별된다. 즉 목활자를 2회 조성하여 사용하였다. 대부분이 초기의 활자를 이용하여 간행하였고, 후기의 활자본으로 보이는 판본은 『論語集解』(亂版 중의 활자본 부분)와 慶長 16년의 『重撰倭漢皇統編年合運圖』, 慶長 18년의 『天台四教儀集註』, 寬永年間の 『金剛鉢』 정도이다.

(2) 涸轍書院版: 학철서원판의 현존 활자본의 목적을 감별하면 모두 목활자본이다. 그런데 慶長 9년의 활자본은 甫庵版 대형 활자를 사용하였고, 慶長 10년 이후에는 요법사판 소형 활자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慶長 9년에는 甫庵版 활자를 빌려서 『醫方大成論』과 『十四經發揮』를, 慶長 10년에는 요법사판 활자를 빌려서 『周易』을 간행한 후, 慶長 13년에는 요법사판 활자를 완전히 인수하여 전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慶長 12년 이전의 요법사판 활자가 요법사에서 다시 사용되

지 않고, 학철서원에서 사용되었으며, 그 후의 요법사관은 慶長 16년에 새로운 활자를 조성하여 사용한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2.2 要法寺版과 潤轍書院版의 數量과 版式

2.2.1 要法寺版의 數量

(1) 『法華經傳記』 10卷 5冊: 요법사관 중 최초의 활자인본은 圓智의 자찬서인 『法華經傳記』이다. 卷10 제17엽하 제6행에 “慶長庚子載季春望日 洛陽 釋圓智誌”의 간기가 있다. 사주단변, 무계, 10행 18자, 소주쌍행, 백구, 하향일엽화문단어미, 판 크기: 20.5×15.6cm, 판심: 法華傳(권차)(장차). 활자 양식을 살펴도 慶長 5년 간행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서 圓智 최초의 간행이면서 최초의 요법사관이다.

(2) 『重撰倭漢皇統編年合運圖』(이하 『倭漢合運圖』로 약칭) 2卷 2冊: 두 번째 활자인본은 圓智 편저인 『倭漢合運圖』이다. 『法華經傳記』와 동종의 활자로 간행되었는데, 소자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여러 차례 중간하여 전래본이 많이 있다. 그 최초의 판본에는 간기는 없지만, 저술 내용이 慶長 5년 전반까지의 기사를 수록하고 있어서 慶長 5년 후반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慶長5년본은 2중(초판과 재판)이 있다. 이 양자는 초판이 다르고 내용에 약간의 출입이 있다. 慶長 8년(1603) 이하의 중간본이 후자의 내용을 따르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전자는 초판이고, 후자는 전자의 개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판식은 양자가 같다. 사주단변, 유계, 분4단, 12행 26자, 소주쌍행, 대흑구, 내향삼엽 및 일엽화문4어미, 판 크기: 29.2×16.8cm, 판심: 年代紀(권차)(장차).

慶長 8년에 동일한 활자로 2번(3판과 4판)이나 간행되었다. 慶長8년1중본(3판), 慶長8년2중본(4판)이라 칭한다. 판본은 慶長5년본에서 慶長 8년까지의 추가되는 내용만 보인하였다. 卷上 제1엽은 양자가 같은 판본인데, 卷下 제74엽(말엽)은 다른 판이라는 사실이 이를 설명하고 있다. 동일 년도에 2회 간행한 것은 수요에 응하기 위함이었다. 3판의 판식은 사주단변, 유계, 분4단, 12행 25자, 소주쌍행,

대흑구, 내향삼엽 및 일엽화문4어미, 판 크기: 29.26×17.12cm, 판심: 年代紀(권차)(장차). 4판은 사주단변, 유계, 분4단, 12행 26자, 소주쌍행, 대흑구, 내향삼엽화문4어미, 판 크기: 29.1×17.0cm, 판심: 年代紀(권차)(장차).

慶長 10년에 동중 활자로 5판이 간행되었다.⁶⁾ 판식 상의 차이는 없으나, 慶長 10년까지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또한 초판~4판과 달리 家康과 秀賴에 경칭을 사용하여 “家康公·秀賴公”이라 칭하고 있다.

慶長 16년에 이전의 활자보다 약간 작은 활자로 6판이 간행되었다. 이는 慶長 16년까지의 내용이 증보되었기 때문에 이때 간행한 것으로 추론한다.⁷⁾ 사주단변, 유계, 분4단, 12행 25자, 소주쌍행, 대흑구, 내향흑4어미, 판 크기: 25.78×17.19cm, 판심: 年代紀(권차)(장차).



<사진 1> 요법사판의 판심: 「重撰倭漢皇統編年合運圖」(초판·3판·4판·6판)

(3) 「元祖蓮公薩埵略傳」 1卷 1冊: 세 번째 활자인본은 圓智의 자찬서인 「元祖蓮公薩埵略傳」(失傳)이다. 현존 元和(1615-1623)寬永年間판 목판본(사주무변, 무계, 7행 17자, 訓點附)을 살펴보면 활자본의 복각임을 알 수 있다. 이 권두에 “元祖蓮公薩埵略傳 埜釋承慧撰”과 권말에 “慶長第六歲季冬下浣三日 本地院中 板行”이라는 간기가 있는 점으로 보아 이의 저본인 활자본은 慶長 6년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論語集解」 10卷 2冊: 「論語集解」도 활자로 간행되었다. 卷10 제8엽하 제5~7행에 “慈眼 刊/正運 刊/洛內要法寺內開板”의 간기가 있는 목판본을 보면 활자본의 복각임을 알 수 있다. 이에서 요법사판 활자본이 간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활자본의 간행 시기에 대하여는 慈眼과 正運이 관여했던 漢籍의 간행

6) 船橋秀賢, 「慶長日件錄」, 慶長 10年 11月 6日조.

7) 활자본은 아니지만 慶長16년본을 복각한 목판본(7판)이 있다.

시기⁸⁾에 근거하면 慶長 5~8년 사이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의 방증으로 목판본(卷首~卷4 제6엽, 卷7 제9엽~卷末)과 활자본(卷4 제7엽~卷7 제8엽)을 혼합하여 짝을 맞춘 亂版 『論語集解』가 있다. 사주쌍변, 유계, 7행 17자, 소주쌍행, 대흑구, 내향흑쌍어미, 판 크기: 21.0×15.0cm, 판심: 論語(권차)(장차). 이의 목판본 부분은 앞의 간기가 있는 목판본과 동일하다. 이는 복각본을 조성할 때, 卷首와 卷末을 먼저 판각하고 중도에 약간의 수요가 발생하여 중간부분을 기존의 활자로 급히 보충하여 완성한 것으로 짐작된다.⁹⁾ 따라서 아마도 활자본 간행 후에 이를 저본으로 목판본이 복각되었을 것이다. 이는 正運刊行의 간기가 있는 활자본 『中庸』과 그 복각본의 존재(11항 참조)에서도 알 수 있다.

(5) 『沙石集』 10卷 10冊: 慶長 10(1605)년에 圓智가 『沙石集』을 활자로 校刊하였다. 漢字 활자는 기존의 것을 사용하였으나, 片仮名 활자는 새로 조성하여 혼용하였다. 卷10 제13엽 제10행에 “慶長十_二年仲春下浣八日 圓智校讎”의 간기가 있다. 사주쌍변, 무계, 10행 19자, 소주쌍행, 片仮名 혼용, 대흑구, 내향삼엽 화문쌍어미, 판 크기: 7촌3푼×5촌3푼, 판심: 沙石集(권차)(장차).

동종 활자로 중간한 『沙石集』이 있다. 간기가 없어서 간년은 알 수 없지만, 판면의 세로 크기와 판형이 慶長 10년본과 동일하다. 사주무변, 무계, 10행 19자, 소주쌍행, 片仮名 혼용, 백구, 무어미, 판심: 沙石集(권차)(장차). 圓智와 관계된

8) 慈眼과 正運이 관여했던 漢籍은 다음과 같다.

서명	판본	관여 인물
孔子家語	慶長4年伏見版활자본	慈眼
貞觀政要	慶長5年伏見版활자본	慈眼
論語集解	활자본의 복각본	慈眼·正運
論語集解	亂版	慈眼·正運
大學	활자본(異版 2종과 복각본 있음)	正運
中庸	활자본(異版 2종과 복각본 있음)	正運
孟子	활자본	正運
大廣益會玉篇	慶長9年木板本(복각본도 있음)	正運·純孝
周易	慶長10年涸轍書院活字本	正運

9) 正運 간행 활자본 『大學』·『中庸』과 亂版 『論語集解』의 활자본 부분의 판식이 동일하다면, 이도 방증이 될 수 있다.

점으로 미루어 要法寺版으로 간주할 수 있다.¹⁰⁾

(6) 『日本書紀 神代卷』 2卷 2冊: 慶長 10년에 『日本書紀 神代卷』을 간행하였다. 券2 제51엽상 제3~4행의 國賢의 발문에 이어서 제7행에 “慶長十_曆年三月上旬二日”의 간기가 있다. 사주쌍변, 유계, 7행 17자, 소주쌍행, 대흑구, 내향삼엽화문쌍어미, 판 크기: 6촌3푼5리×4촌9푼5리, 판심: 日本記(권차)(장차). 광곽과 판심이 여타의 慶長10년본과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병행하여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행간이 넓은 것은 훈을 기입하기 위한 배려로 생각된다. “一書曰”을 본문보다 1자 내려서 조판한 점에서 칙판 『日本書紀 神代卷』을 저본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慶長 칙판을 실사하면 판식은 사주단변, 무계, 8행 17자, 소주쌍행, 대흑구, 흑어미, 판 크기: 24.98×16.4cm, 판심: 日本記(장차). “一書曰”을 본문보다 2자 내림 등으로 요법사판과 다르다. 一馬가 판식에 관하여 착각한 듯하다.

또한 본문은 慶長10년본과 同版인데, 간기가 없는 판본이 있다. 『沙石集』·『文選』과 유사한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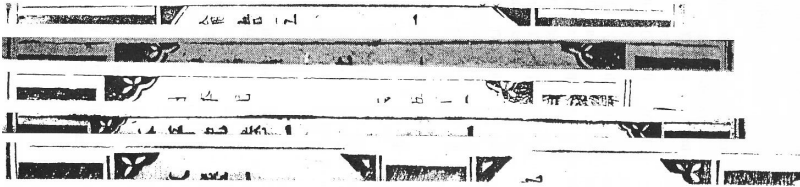
(7) 『太平記』 40卷 20冊, 卷首 목록 1冊: 慶長 10년 9월에 활자로 『太平記』를 간행하였다. 卷40 제12엽상에 “慶長十年_曆九月上旬日”의 간기가 있다. 사주쌍변, 무계, 12행 20~27자, 소주쌍행, 片假名 혼용, 대흑구, 내향삼엽화문쌍어미, 판 크기: 22.82×16.49cm, 판심: 太平記(권차)(장차). 한자 활자는 『文選』(8행 참조)과 동종이지만, 片假名 활자는 『沙石集』의 것보다 우수한 신조 활자다.

(8) 『文選』 60卷 31冊: 慶長 12년 直江兼續이 상관인 上杉景勝의 후원으로 圓智에 의뢰하여 요법사에서 활자로 『文選』을 간행하였다. 卷60 제37엽상 제10행에 “慶長丁未沽洗三月上旬八葉 板行畢”의 간기가 있다.¹¹⁾ 간행 주체의 이름을

10) 元和 2年(1616)에 활자본 『沙石集』 10卷 10冊이 2번이나 간행되었다. 두 번째 판본은 異植字版이다. 사주쌍변, 무계, 12행, 片假名 혼용. 卷10 제13엽 제12행에 “元和二年六月吉日 圓智校讎”의 간기가 있어서 慶長10년본을 중간하였음을 알 수 있다. 元和 2년은 圓智가 입적한 후이므로 중간할 때 간년만 교체하였음을 알 수 있다. 元和 4년(1618)에도 활자본 『沙石集』이 간행되었다. 卷10하 제13엽하 제11행에 “元和四年正月吉日”의 간기가 있다. 慶長10년활자본과 같은 간기를 가진 복각본이 있는데, 활자본의 복각으로 문자의 크기가 약간 작은 점에서 새로운 활자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元和2년활자본의 복각본도 있다. 寬永년간 이후에는 수차례 片假名을 혼용한 목판본이 간행되었고, 平假名을 혼용한 목판본도 간행되었지만 모두 慶長10년圓智교간본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

따서 “直江版”이라고도 한다. 直江兼續·上杉景勝·圓智의 관계에 대하여 문헌 기록은 없으나, 『文選』의 간행 사실에서 세 사람의 관계가 밀접하였음을 추측할 뿐이다. 涸轍이 관여하기도 하였다. 사주쌍면, 유계, 10행 22자, 소주쌍행, 대흑구, 내향삼엽 및 일엽화문4어미, 판 크기: 25.1×16.4cm, 판심: 文選(권차)(장차). 『太平記』 원 표지의 안쪽에 直江版 활자본 『文選』 卷1 제45엽 등의 파지를 사용하고 있다. 즉 『文選』은 慶長 12년 4월에 간행 완료되었지만, 간행 시작은 『太平記』가 완성된 慶長 10년 9월 이전에 이미 착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卷末의 제37엽(말엽)만을 새로 조판한 이판이 있다. 간기가 없어서 양자의 선후 관계는 알 수 없지만, 간행 시차는 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간기가 없는 이판이 판식이 정비되기 전에 시험적으로 먼저 인출한 것일 수도 있다.



<사진 2> 요법사판의 판심:
『論語集解』·『沙石集』 초판·『日本書紀 神代卷』·『太平記』·『文選』

(9) 『天台四教儀集註』 3卷 3冊: 『天台四教儀集註』의 권말에 다음과 같은 간기가 있다.

慶長十八^{癸丑}年八月 日
於京師要法精舍板行焉

11) 寬永 2년(1625)에 이를 목활자로 중간한 판본이 있다. 소장처는 다음과 같다. (일본)國立國會圖書館(WA7-80)·東洋文庫(三Ae30)·內閣文庫(別28-1)·慶應大學圖書館(110X-35)·慶應大學斯道 文庫(092-ト82-30)·東京大學總合圖書館(Aoo-5819·Aoo-6132)·天理大學附屬圖書館(924.2-イ 3)·杏雨書屋(洗心6985). 간혹 “寬永二年”의 간기를 제거하여 원판본으로 위작한 것도 있지만, 원판이 “有界”임에 비하여 이는 “無界”이므로 바로 판단할 수 있다. 목록 1책은 “有界”이다.

이에서 慶長 18년에 요법사에서 『天台四教儀集註』를 간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圓智가 입적하기 직전에 간행된 점에서 이 판본도 역시 圓智가 관여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요법사판 중에서 마지막 판본이다. 활자는 지금까지의 요법사판과 다른 점에서 새로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사주단변, 무계, 11행 20자, 판 크기: 7촌5푼×5촌3푼.

(10) 『金剛鐔』 1卷 1册: 요법사판 활자본으로 『金剛鐔』가 있다. 권말에 소형 활자로 “於要法寺板行”의 간기가 있다. 간년은 없지만, 활자의 양식으로 미루어 寬永년간 후반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사주무변, 무계, 7행 17자, 판 크기: 종6촌 8푼. 관심제: 金鐔 (장차).

(11) 『四書』¹²⁾: 활자본을 복각한 『四書』가 있는데, 『中庸』에만 제41엽하 제7행에 소자로 “關東上總住今關正運刊”이라는 正運의 간기가 있다. 이로 미루어 慶長 후반기에 正運이 간행한 활자본 『四書』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正運이 간행한 『大學』과 『中庸』은 3종의 활자본이 있다. 『中庸』에는 또한 활자본의 복각본도 있다. 활자본의 판식이 要法寺版 亂版 『論語集解』의 활자본 부분과 일치하므로 같은 시대에 간행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 하여도 이 점이 요법사에서 간행하였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正運은 要法寺版에도 鐵山叟宗鈍版에도 涸轍書院版에도 장인으로서 관여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正運과 요법사의 관계가 밝혀지기 전에 이들 활자본을 요법사판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要法寺版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록하여 둔다.

(12) 이밖에도 요법사에서 간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古曆』이 있다. 慶長 12년 『文選』의 간행 이후, 요법사에서 동종의 활자로 간행한 판본이 없는 것은 이 활자가 涸轍書院으로 넘어갔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각 기관의 소장목록과 연구문헌의 검색을 통하여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알려진 요법사판의 서적은 <表 1>과 같다. 이중 본 연구를 위하여 실시한 판본은 11종, 사진판을 참고한 것은 1종, 서영을 참고한 것은 11종이다.

12) 『大學』 1책 · 『中庸』 1책 · 『論語』 2책 · 『孟子』 4책.

<表 1> 要法寺版 古活字本 目錄

	書名	卷-册數	版本事項 ¹³⁾	비고	
1	金剛鐸	1-1	寬永年間後半印本		
2	論語集解	10-2	慶長5-8年間印本	慈眼・正運刊, 失傳	
3			慶長年間(?)印本	亂版	(2)三Aa27
4	文選	60-31	慶長12年印本	直江版 (1)WA7-17 (2)三Aa28 (2)三Aa29 (5)22-44-64 (9)110X-39	(10)924.2- 15 (11)特823-42(568) (12)恭仁59 (14)p.53 (15)p.259
5	法華經傳記	10-5	慶長5年印本	圓智撰刊	(1)WA7-23
6	沙石集	10-10	慶長10年印本	圓智校刊, 초판 (10)011- 111-14 (14)p.31	
7			慶長年間(?)印本	圓智校刊, 재판	(14)p.117
8	重撰倭漢皇統編年 合運圖	2-2	慶長5年印本	圓智撰刊, 초판 (1)WA7-12	(9)110X-120
9			慶長5年印本	圓智撰刊, 재판 (5)33-10-142	(14)p.21 (15)p.250
10			慶長8年印本	圓智撰刊, 3판 (10)210.03- 113	(14)p.23
11			慶長8年印本	圓智撰刊, 4판 (3)特121-22	(11)特930-2(150) (11)寫真版210.32-E58
12			慶長10年印本	圓智撰刊, 5판	
13			慶長16年印本	圓智撰刊, 6판	(10)210.03- 11
14	元祖連公薩埵略傳	1-1	慶長6年印本	圓智撰刊, 失傳	
15	日本書紀 神代卷	2-2	慶長10年印本	(8)貴0-05/2-2	(8)마이크로필름 P684
16	太平記	40-20	慶長10年印本	(5)7-21-1925	(7)3-47書
17	天台四教儀集註	3-3	慶長18年印本		
	古曆		要法寺版(?)		
	四書		要法寺版(?)	正運刊	

비고: 판본의 소장처와 청구기호, 실사 판본에는 밑줄.

(1) = (日本)國立國會圖書館, (2) = 東洋文庫, (3) = 內閣文庫, (4) = 書陵部, (5) = 大東急紀念文庫, (6) = 靜嘉堂文庫, (7) = 尊經閣文庫, (8) =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9) = 慶應義塾大學圖書館, (10) = 天理大學附屬圖書館, (11) = 京都府立總合資料館, (12) = 杏雨書屋, (13) = 高木文庫古活字版目錄, (14) = 弘文莊古活字版目錄, (15) = 弘文莊善本目錄.

- 13) 일본의 판본사항 기록 방식은 활자본일지라도 ‘모년모주체刊’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모년모주체 刊行’의 의미다. 본 연구에서는 판본의 생산 수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활자본의 경우는 ‘모년모주체모활자(모년鑄 또는 모년刻)印本’으로 기록한다. 왜냐하면 刊本 또는 刻本은 목판본을 의미하며, 활자본은 활자의 제작 시기와 인출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보면 총 10종 17판본인데, 이들의 크기는 1卷 1책에서 60卷 31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 중 『倭漢合運圖』는 6회, 『沙石集』은 2회 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2.2 涸轍書院版의 數量

(1) 『醫方大成論』 1卷 1冊: 慶長 9년에 활자로 『醫方大成論』을 간행하였다. 제68엽하 제7~8행 제5~14자에 “惟時慶長甲辰仲夏良日/日東下洛涸轍書堂重刊”의 간기가 있다. 사주쌍변, 무계, 9행 16자, 대흑구, 하향흑단어미, 판 크기: 20.4×16.1cm, 판심제: 醫方大成 (장차).

(2) 『十四經發揮』 3卷 1冊: 慶長 9년에 활자로 『十四經發揮』를 간행하였다. 卷下 제7엽(말엽)하 제6~7행에 “慶長歲舍甲辰仲冬良日/日東下京涸轍堂活板焉”의 간기가 있다.

위 두 종의 판본에 사용된 활자는 京都의 小瀬甫庵版 『十四經發揮』(文錄5, 1596년인본)와 『新編醫學正傳』(慶長2년인본)뿐만 아니라 一條道場迎稱寺版 『醫方大成論』(慶長3년인본)의 간행에도 사용되었다. 이에서 涸轍이 慶長 9년에 甫庵版 활자를 빌려서 2종의 의서를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로 『十四經發揮』의 판식은 甫庵版과 동일하다. 사주쌍변, 유계, 9행 17자, 소주쌍행, 목판병용, 대흑구, 내향삼엽화문쌍어미, 판 크기: 21.75×17.13cm, 판심: 十四經(권차)(장차). 涸轍版 『醫方大成論』을 迎稱寺版과 비교하여 보면 판식·행자수·문자배열·엽수 등이 같음은 물론 같은 활자가 같은 위치에 식자된 경우까지도 발견된다. 사주쌍변, 무계, 9행 16자, 흑구, 흑단어미. 차이점은 迎稱寺版의 오자·탈자를 涸轍版에서는 정정한 점이다. 즉 개정판인 격이다. 다시 말하면 小瀬甫庵版 활자가 자신이 필요한 의서 간행에는 물론, 迎稱寺版과 涸轍版 서적 간행에도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慶長 9년에 『醫方大成論』과 『十四經發揮』를 간행할 때, 甫庵이 관여하였음은 당연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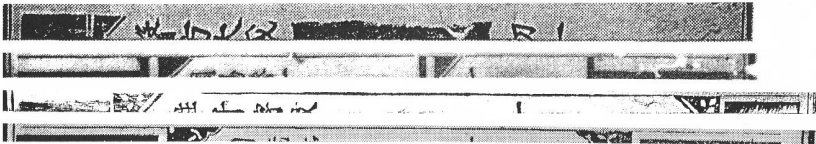
(3) 『周易』 10卷 3冊: 慶長 10년에 활자로 『周易』을 간행하였다. 卷10 제24엽

하 제7행(말행) 하단에 소자로 “關東下總住正運刊焉”과 다음 엽인 발문 제1엽하의 제7행(말행)에 “慶長乙巳季夏日東下洛涸轍子祖博謹跋”의 간기가 있다. 사주쌍변, 유계, 7행 17자, 소주쌍행, 대흑구, 하향흑쌍어미, 판 크기: 20.61×13.9cm, 판심: 周易(권차)(장차). 실물을 관찰하면 요법사 直江版「文選」과 같은 활자임을 알 수 있다.

(4) 「纂圖附音增廣古註千字文」(이하 「古註千字文」으로 약칭) 3卷 1冊: 慶長 13년에 활자로 「古註千字文」을 간행하였다. 卷3 제39엽하 제8행에 “慶長戊申中春良日 下洛涸轍書院新槧”의 간기가 있다. 사주쌍변, 유계, 10행 20자, 소주쌍행, 대흑구, 내향삼엽화문쌍어미, 판 크기: 22.45×15.19cm, 판심: 註千字文 (장차).

또한 활자·판식 등은 완전히 같은데, 오직 간기만 없는 판본이 있다.

(5) 「指微韻鑑」 1卷 1冊: 慶長 13년에 활자로 「指微韻鑑」을 간행하였다. 본문 제44엽하의 제5~6행 제11~18자에 “慶長戊申中春良日/下洛涸轍書院新槧”의 간기가 있다. 사주쌍변, 유계, 11행 18자, 소주쌍행, 대흑구, 내향삼엽화문쌍어미, 판 크기: 22.31×15.77cm, 판심: 勻竟 (장차).



<사진 3> 학철서원판의 판심:
「醫方大成論」·「周易」·「纂圖附音增廣古註千字文」·「指微韻鑑」

(6) 「脉經」 2卷 1冊: 慶長 13년에 활자로 「脉經」을 간행하였다. 「周易」·「古註千字文」·「指微韻鑑」·「脉經」은 모두 요법사 直江版「文選」과 같은 활자로 간행되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涸轍書院版의 서적은 <表 2>와 같다. 이중 본 연구를 위하여 실시한 판본은 4종, 서영을 참고한 것은 6종이다.

<表 2> 涸轍書院版 古活字本 目錄

	書名	卷-冊數	版本事項	비고	
1	脉經	2-1	慶長13年印本		
2	十四經發揮	3-1	慶長9年印本	(2)三Aj10	
3	醫方大成論	1-1	慶長9年印本	(10)490- 493	
4	周易	10-3	慶長10年印本	正運刊	(12)恭仁43
				(2)三Aa10 (6)101-4(2부)	(14)p.35 (14)p.163
5	指微韻鑑	1-1	慶長13年印本	(4)556-5 (10)821- 477 ¹⁴⁾	(15)p.261
6	纂圖附音增廣古 註千字文	3-1	慶長13年印本	(2)三Ae18(무간기본)	
				(13)36-5 (13)36-6(무간기본) (14)p.181(무간기본)	

비고: 판본의 소장처와 청구기호, 소장처 번호는 要法寺版 古活字本 目錄과 동일.
실사 판본에는 밑줄.

이상에서 보면 총 6종 6판본인데, 이들의 크기는 1~3책의 소형 판본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2.2.3 要法寺版의 版式 상 特徵

涸轍書院版 「醫方大成論」과 「十四經發揮」는 甫庵의 대형 활자로 간행한 것이므로 甫庵版 연구에서 서술하기로 미루고, 기타의 판본은 결국 요법사판 활자로 인출한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요법사판과 합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요법사판과 학철서원판을 합하여 실사자 15종, 사진판 1종, 서영 17종 중 중복을 제외한 실사자 13종과 실사하지 못한 판본의 서영 4종(「沙石集」 2종 · 「日本書紀 神代卷」 · 「醫方大成論」)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4) 이 판본은 장서인과 좀 먹은 흔적을 보면 (15)p.261을 구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2.3.1 表紙 題簽 書名

제침 서명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4종, 제침 없이 표지에 묵서한 경우가 6종(『論語集解』는 주목서 혼용), 제침이 탈락한 흔적만 남은 경우가 2종, 표지 서명이 없는 경우가 1종이다.

2.2.3.2 匡廓 형식

사주쌍변이 10종, 사주단변이 6종, 광곽이 없는 경우가 1종이 있다. 좌우쌍변은 없다. 『法華經傳記』는 사주단변인데, 판심을 중심으로 좌우의 판면을 각각 4개의 광곽으로 조립하였다. 그 결과 판심의 상하단 판구 부분에는 광곽이 없다.

2.2.3.3 界線 유무

있는 경우가 12종인 반면에, 없는 경우가 5종으로 나타나고 있다.

2.2.3.4 行數

반엽에 7행이 3종, 9행이 2종, 10행이 5종, 12행이 6종, 13행이 1종으로, 대부분이 10~12행이다.

2.2.3.5 字數

16자가 1종, 17자가 4종, 18자가 1종, 19자가 3종, 20자가 1종, 20~27자가 1종, 22자가 1종, 25자 이상이 5종이다. 25자 이상이 많은 이유는 『倭漢合運圖』의 판면이 크기 때문이다.

2.2.3.6 小註 형식

쌍행 형식이 14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단행이 2종이고, 『醫方大成論』은 현재 확보한 서영만으로는 알 수 없다.

2.2.3.7 版口 형식

대흑구가 15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백구는 2종이 있다. 화구는 없다.

2.2.3.8 魚尾 형식

삼엽화문4어미가 5종, 흑4어미가 1종, 삼엽화문쌍어미가 6종, 흑쌍어미가 2종, 흑단어미가 1종, 일엽화문단어미도 1종, 어미가 없는 경우도 1종이 있다. 『倭漢合運圖』는 판면이 커서 모두 4어미를 택하고 있다. 『文選』도 4어미인데, 요법사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2.3.9 기타 특징

관심을 이루는 판구와 어미가 일체식으로 된 경우가 있다. 양측의 계선을 포함한 완전 일체식이 10종, 계선을 조립하는 부분 일체식이 5종, 조립식이 1종, 서영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1종(『沙石集』慶長年間(?)印本)이다. 일체식 관심의 관심제는 모두 小字 활자로 조판하였다. 활자 인쇄의 경우, 활자는 물론 관심도 판구·어미·관심제·권차·장차·계선 등 부분이 모두 독립되어 조립으로 완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일본의 여러 활자본을 관찰하면 일체식 관심의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 점이 일본 활자본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관심과 계선이 부분 일체식처럼 분리되어 인출되기는 하였으나, 실은 완전 일체식 관심이 있다. 이의 증거로 다음을 들 수 있다.

(1) 「倭漢合運圖」의 판심은 흑구와 계선의 상하단이 일치하고, 어미와 계선의 간극과 목색이 반복 사용된 엽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2) 「倭漢合運圖」의 본문을 2단 혹은 3단으로 달리 구분하거나 분단의 위치가 변하여도 판심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 점에서 계선을 포함하여 완전 일체식 판심을 알 수 있다.

부분 일체식 판심에서 판심과 계선이 분리된 증거로 다음을 들 수 있다.

(1) 「文選」 판심의 어미 가장자리 선이 4개가 모두 일치한다. 이는 어미가 일체식이라는 명백한 증거다.

(2) 「文選」에서 판구의 흑구와 판심 계선의 상단이 일치하지 않고, 흑구와 어미의 목색과 계선의 목색도 다르다.

(3) 「醫方大成論」의 판심은 상변 광곽·판구·흑어미(하향)·판심제(醫方大成)·판구와 같은 검은 막대·장차·하변 광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판심 중간의 판구와 같은 검은 막대가 특징인데, 이는 판심을 이루는 막대에 조립이 필요한 판심제와 장차가 들어갈 부분을 파내어 형성한 일체식임을 의미한다. 같은 예를 「法華經傳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음각 활자와 기호 활자를 사용하고 있는 판본으로 「倭漢合運圖」와 「指微韻鑑」이 있다. 「倭漢合運圖」의 음각 활자 크기는 대자가 11.2×12mm((10)210.03-113의 卷上 제2엽상 제8행 하단 제2자 “頭”) 또는 9.8×12.2mm((10)210.03-11의 卷上 제2엽상 제8행 하단 제3자 “紀”), 소자가 11.2×6mm 또는 9.5×6mm((10)210.03-113와 210.03-11의 卷上 제3엽하 제6행 하단 제1자右 “三”)이다.

활자와 목판을 한 엽의 인판에 병용하고 있는 판본으로 「十四經發揮」가 있다. 이는 의서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체의 그림 등은 활자로 표현할 수 없으므로 인한 부득이한 현상이다.

본문에 片仮名 활자를 한자보다 약간 작게 조성하여 사용한 판본으로 「沙石集」과 「太平記」가 있다.

「指微韻鑑」은 서문에 사용한 활자와 본문에 사용한 활자의 크기가 같지 않다. 본문 활자는 서문의 대소자의 중간 크기다.

3. 要法寺版 古活字의 活字製作技術

인쇄기술 역시 潤轍書院版 『醫方大成論』과 『十四經發揮』는 甫庵의 대형 활자로 간행한 것이므로 甫庵版 연구에서 서술하기로 미루고, 여기에서는 요법사판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인쇄기술에 대하여 활자 인쇄의 3요소인 활자의 제작, 조판 = 인판의 제작, 인출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기술 수준을 분석한 후, 이를 종합하여 전반적인 인쇄 기술을 평가하였다.

3.1 材質과 製作 方法

3.1.1 字樣과 字跡의 일치 여부

자양이 일치하지 않지만, 매우 유사하고 세련된 경우가 있다(『周易』).

자양이 일치하지 않은데, 그 양상이 약간 유사하기도 차이 나기도 하여 혼재하고 있다. 세련도는 다소 떨어진 다(『論語集解』·『文選』·『倭漢合運圖』(초판·재판·3판·4판·6판)·『太平記』·『指微韻鑑』·『古註千字文』). 『論語集解』에서는 자양이 아주 다른 경우도 보인다.

자양이 크게 차이 나고 별로 세련되지 못한 수준의 경우도 있다(『法華經傳記』·『倭漢合運圖』(6판)). 『倭漢合運圖』(6판)의 경우, 소자에서 일치하지 않는 정도가 더 커 보인다.

문자의 크기가 다른 경우도 있다. 드물지만 다소 작은 문자가 보이기도 한다(『法華經傳記』·『倭漢合運圖』(3판)). 『倭漢合運圖』(6판)에는 대자에서는 약간 작은 것이 소자에서는 약간 큰 것이 간혹 섞여 있다. 『指微韻鑑』의 문자 크기는 서문용 활자는 균일하지만, 본문은 다소 차이난다.

음각활자의 목적을 보면 사방이 방정한 활자임을 알 수 있다(『倭漢合運圖』).

3.1.2 刀刻의 痕迹

도각의 흔적은 모든 판본에서 쉽게 관찰된다. 필획의 시작·마무리·돌아가는 곳 등의 윤곽에서 시종 나타나고, 필획이 교차하는 곳에서도 간혹 보인다(『文選』·『法華經傳記』·『倭漢合運圖』(초판·재판·4판)).

필획의 시작·마무리·돌아가는 곳 등의 윤곽에서는 역력하고(『論語集解』·『倭漢合運圖』(3판·6판)·『太平記』·『周易』·『指微韻鑑』·『古註千字文』), 교차에서는 간혹 보이기도 하고(『太平記』·『周易』·『指微韻鑑』·『古註千字文』) 역력한 경우도 있다(『倭漢合運圖』(3판·6판)).

필획을 만드는 조각도 매끄럽지 못하고 각진 부분도 많아서 균일하거나 안정되지 못하여 세련미를 그다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도각술이 제법 거친 경우도 있다(『倭漢合運圖』(3판)). 『倭漢合運圖』(6판)는 소자의 필획 윤곽이 더 거칠고 매끈하지 못하다.

3.1.3 木理의 有無

목리는 모든 판본에서 크고 작은 것을 시종 쉽게 볼 수 있다(『論語集解』·『法華經傳記』·『倭漢合運圖』(초판·재판·4판)·『太平記』·『周易』·『古註千字文』).

흔하지는 않지만, 어렵지도 않게 볼 수 있기도 하고(『文選』), 크고 작은 것들이 역력한 경우도 있다(『倭漢合運圖』(3판·6판)·『指微韻鑑』).

간혹 필획이 결실된 문자도 있다(『太平記』).

3.2 熟練度

3.2.1 筆書體의 筆意 表現

필획의 윤곽과 필획 굵기의 균정도를 살펴보면, 모든 판본에서 필서체의 필의를

살리고 있다.

3.2.2 文字의 美感

서체의 균형을 대소 문자 모두 잘 유지하고 있으면서 필획도 매우 균정하여 힘 있는 구양순 해서체로 미감을 잘 살리고 있다. 필획 시작 부분의 빠침이 이 활자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다. 드물게 필획이 결실된 문자가 보인다(『周易』). 『倭漢合運圖』(초판·재판·4판)는 대자의 필획은 균정한 것과 매끈하지 못한 것이 혼재하나 구양순체의 강건하고 가공하지 않은 소박한 분위기를 균정하게 유지하고 있어서 서체의 미감을 잘 살리고 있다. 『法華經傳記』에서 신조 활자로 보이는 문자는 필획 윤곽이 분명하고 붓끝을 흘린 필의까지 표현하고 있다. 『指微韻鑑』의 서문의 문자는 본문과 달리 대체로 균정하여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다.

필획은 균정한 편이면서 다소 힘 있고 부드러운 해서체를 표현하고 있다. 간혹 미감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있으나, 대체로 윤곽의 조각 흔적이 역력하거나 다소 사용하여 윤곽이 마모된 것이 섞여 있어서 균정도를 떨어뜨린다. 세련미는 약간 떨어지지만 필획 시작 부분의 빠침 등 미감을 다소 느낄 수는 있다(『太平記』).

서체의 균형은 대체로는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필획이 균정하거나 매끈하지 못하여 자양이 제법 차이 나면서 거친 도각의 흔적이 곳곳에 보이기도 한다(『論語集解』·『文選』·『古註千字文』). 대부분의 문자가 필획이 마모되고 균정하지 못하여 부조화스럽거나(『法華經傳記』·『倭漢合運圖』(초판·재판)·『太平記』), 필획이 굵고 가는 문자가 섞여 있으며, 대자는 비교적 굵은 필획이 균일하여 안정된 편이지만, 소자는 한 문자 내에서도 필획에 따라 차이가 보여 안정되지 못한 상태인데, 판면에 소자가 대부분이어서 세련미가 상당히 떨어지기도 한다(『倭漢合運圖』(6판)). 문자의 크기가 다르기도 하고 필획도 균정하지 못하여 세련미가 제법 떨어진다. 서체는 독특하기는 하나 미감을 논하기에는 역부족이다(『古註千字文』).

서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소 문자가 약간씩 균형을

않고 있다. 필획도 굵은 것과 가는 것이 혼재하고 있고, 한 문자 내의 여러 필획의 굵기가 각각 다른 경우도 있어서 그다지 균정하지 못하여 안정감이 다소 떨어진 다. 특히 소자는 미감을 살릴 만큼 자양이 유사한 것과 반대로 다소 균형을 잃거나 거칠고 균정하지 못한 차이로 미감을 논하기 어려운 것이 혼재하고 있다. 필획의 일부가 탈락된 경우도 드물게 보인다(『倭漢合運圖』(초판·재판·3판·4판)·『指微韻鑑』).

3.3 기타

3.3.1 例外的인 活字

『論語集解』亂版의 활자 부분이 목판 부분과 목색이 약간 차이나는 점으로 보아 목판의 유실된 부분을 활자로 보완한 듯하다.

『周易』卷1 제1엽 3행9자 “貞”은 말획을 결하였다.

필획이 굵고 윤곽이 마모되어 서체가 무디어졌거나 목리와 도각의 흔적이 역력한 문자와 함께 필획이 가늘면서 윤곽이 분명한 문자가 섞여있는 점이 확연하여 보각한 활자가 약간 섞인 제법 사용한 활자임을 알 수 있다(『周易』·『論語集解』·『法華經傳記』·『指微韻鑑』·『古註千字文』).

3.3.2 木板의 並用

『論語集解』난판의 목판 부분이 유일하다. 이 부분은 활자의 범주를 벗어나므로 평가를 생략한다.

3.4 綜合 評價

활자제작기술 수준이 상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2종(『倭漢合運圖』(4판)·『周

易』)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중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도각술은 유지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중상급이다.

4. 要法寺版 古活字의 組版技術

4.1 字跡의 從行과 橫列

4.1.1 從行

대소 문자 모두 대체로 가지런한 경우도 있고(『文選』·『倭漢合運圖』(초판·재판·4판)), 다소의 치우침이 간혹 보이기도 한다(『論語集解』·『法華經傳記』·『周易』).

대체로 가지런하지만, 약간씩 또는 미세하게 빼뚫어져서 간혹 활처럼 굽은 행도 있다(『倭漢合運圖』(3판·6판)·『太平記』·『指微韻鑑』·『古註千字文』).

소자의 경우 오차가 다소 커서 빼뚫빼뚫하게 보이는 행도 간혹 보인다(『周易』).

4.1.2 橫列

전반적으로 가지런한 편이다. 문자 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정연하기도 하고(『文選』·『倭漢合運圖』(4판)·『周易』), 가지런하게 맞추고는 있으나, 시종 약간의 굴곡이 보이기도 한다(『古註千字文』).

대체로 가지런하게 맞추고는 있으나, 옆에 따라 약간의 굴곡이 보이면서 판면이 그다지 정연하지 못하다(『論語集解』·『法華經傳記』·『倭漢合運圖』(초판·재판)).

대자는 대체로 가지런한 편이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자는 크고 작게 어긋나고 있으며 맞추지 못하는 곳도 있어서 가지런하지 못하다(『倭漢合運圖』(3판·6판)).

가지런히 맞추지 못하기도 하고(『太平記』), 족보처럼 횡 계선을 쓰고 있으나, 계선 자체가 빠뜨려진 것이 많은 경우가 있다(『指微韻鑑』).

4.2 字跡의 安置 角度

소자를 많이 사용한 때문인지 기술 수준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밀집 조판한 경우는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두드러지게 빠뜨려진 문자는 거의 없고(『文選』), 미세한 것이 엽 당 평균 7~8자, 약간의 경우가 2~3자(『指微韻鑑』) 또는 3~4자 정도 보인다(『周易』).

빠뜨려진 경우가 약간의 정도 차이를 보이면서 간혹 나타나고 있다. 특히 판면에 문자가 적을 경우, 그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倭漢合運圖』(4판)). 눈에 덜 만큼 두드러지게 빠뜨려진 문자는 대소 문자 합하여 3~4자(『論語集解』), 또는 대자 4~5자, 소자 6~7자이지만, 그 정도가 약한 소자는 적지 않다(『倭漢合運圖』(초판·재판)).

빠뜨려진 문자가 정도의 차이에 따라 눈에 띄는 것까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法華經傳記』). 거의 대부분이 소자에서 나타나는데, 문자가 반듯하지 못하고 약간씩 다양하게 틀어져 있어서 정연하지 못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이다. 약간 경우가 대자 7~8자, 소자 18~22자(『倭漢合運圖』(3판·6판)), 두드러진 경우는 3~4자(『倭漢合運圖』(3판)), 10여 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古註千字文』·『太平記』).

4.3 文字面과 印出面의 水平

4.3.1 文字面の 水平

필획 일부가 인출되지 않은 경우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묵색 농담은 엽에 따라 비교적 균일하기도 하고 차이 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정도는 심하지 않거나

약간 차이 나는 정도로 안정된 편이다(『論語集解』·『法華經傳記』·『指微韻鑑』, 서문·『古註千字文』).

필획 일부가 인출되지 않은 경우가 小字에서 드물게 또는 간혹 보인다(『論語集解』·『文選』·『倭漢合運圖』(초판·재판·4판)).

필획 일부가 연하게 인출된 것이 2~4자(『倭漢合運圖』(6판)·『指微韻鑑』 본문), 일부가 경미하게 인출되지 않은 것이 1~2자 정도로 매우 적어서 배면이 평평한 활자로 보인다(『周易』·『倭漢合運圖』(6판)). 일부 인출되지 않은 것이 2~3자 정도인데, 반 정도만 인출된 것도 있다(『指微韻鑑』 본문). 목색이 연한 엽에서 대소 문자를 합하여 일부 연한 것이 10여 자, 일부 안 찍힌 것이 5~6자 정도에 이른 경우도 있다(『倭漢合運圖』(3판)). 또한 일부 인출되지 않은 문자가 자주 보이면서 경중이 섞여 있는데 심한 것이 적지 않은 경우도 있다(『太平記』).

4.3.2 印出面의 水平

인출면으로부터 반영된 목색을 전반적으로 조망하면, 목색 농담이 목판과 견줄 수 있는 엽도 있어서 상당히 균일하기도 하고, 미세한 차이 또는 드물게 제법 차이 나는 엽이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정도는 심하지 않아서 안정된 편이다(『論語集解』·『周易』·『指微韻鑑』, 서문).

목색 농담이 엽에 따라서는 농담 차이가 적은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면서 번질 듯 진한 문자와 연한 문자가 공존하여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소자에서는 농담차가 약간 더 크다(『文選』·『倭漢合運圖』(초판·재판·4판)·『太平記』). 소자가 많고 분단되어 있어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긴 하나, 안보일 듯한 문자가 있기도 한다(『倭漢合運圖』(초판·재판)).

목색이 비교적 진한 엽이 4~5자 정도로 제법 균일한 경우가 있고(『倭漢合運圖』(6판)), 연한 경우가 3~4자, 진한 경우가 8~9자 정도인 경우도 있다(『指微韻鑑』 본문). 거의 목정이 된 소자도 간혹 보인다(『文選』).

목색 농담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단번에 활자본임을 알 수 있을 정도

이다(『倭漢合運圖』(3판·4판)·『古註千字文』). 진한 엽에서는 진한 문자가 연한 엽에서는 연한 문자가 적지 않다. 또 진하기도 하고 거의 인출되지 않았을 만큼 연하기도 한 것이 혼재하고 있다. 대부분이 소자이기는 하나 안정되지 못한 수준이다(『倭漢合運圖』(3판·4판)).

광곽의 내선과 계선은 문자가 많은 엽에서는 간혹 인출되지 않은 곳이 있기는 하나, 대체로는 비교적 잘 인출되었다(『倭漢合運圖』(초판·재판·3판·4판)). 광곽이 드물게 희미하게 인출된 곳이 있다(『倭漢合運圖』(3판)).

광곽의 내선과 계선이 인출되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고(『論語集解』), 대체로 잘 인출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혼재하기도 한다(『文選』·『周易』). 광곽 모서리가 간혹 인출되지 않은 곳이 있다(『法華經傳記』·『倭漢合運圖』(초판·재판)). 광곽 내선의 일부가 드물게 인출되지 않은 곳도 있다(『太平記』·『指微韻鑑』(계선은 인출)·『古註千字文』). 계선과 활자의 높이가 달라서 계선 일부가 인출되지 않은 곳이 많이 보이기도 한다(『倭漢合運圖』(6판)).

4.4 印版 匡廓의 꼭지점

대부분의 판본에 광곽의 네 꼭지점이 벌어져 있는 缺口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중 양호한 경우는 1~2mm(『論語集解』·『文選』·『倭漢合運圖』(3판·6판)·『周易』), 2~3mm(『倭漢合運圖』(초판·재판·4판)·『太平記』·『指微韻鑑』), 또는 2~5mm 정도 벌어진 것이 있다(『古註千字文』).

다소 심한 경우로는 3~8mm 정도로 제법 크게 벌어져 있다(『法華經傳記』).

요법사판은 모든 판본에서 조립식 광곽을 사용하고 있고, 식자 방법으로 조임 식을 사용하고 있다. 조임 방법은 일부 판본에 잠목 형태로 나타난 흔적을 보면 짐작이 가능하다.

『文選』의 경우, 상변을 고정하기 위하여 17~23mm의 위에, 좌우 광곽을 고정하기 위하여 15~18mm 정도의 광곽 밖 10~12자와 19자 위치에 5~12×9~15mm의 고정용 나무못(쇄기)을, 하변을 고정하기 위하여 14~15mm의 아래 1~2행과 4~7

행 또는 8~9행 위치에 3~6×4~12mm의 고정용 나무못을 2~3개 박아서 광곽을 고정한 것을 알 수 있다. 예외적으로 하변의 4~5행 위치의 광곽에 밀착하여 5×10~15mm의 썬기를 박아서 고정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상변을 고정하기 위하여 10~11mm의 위에(『倭漢合運圖』(3판)), 12~28mm의 위에(『古註千字文』), 19mm의 위에(『指微韻鑑』), 24mm의 위에(『法華經傳記』) 길다란 고정용 막대를 사용하였다.

판심과 광곽의 특징을 모두 분석하면 5장의 인판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法華經傳記』).

4.5 기타

4.5.1 一切式 版心과 界線 격자

『法華經傳記』 卷7 제22엽 등에 나타난 잡목에 근거하면, 판심목을 상단은 광곽보다 10mm, 하단은 8mm 길게 제작하였다. 이 판심목에 어미와 판심제는 조각하고, 권차와 장차부분은 파내어서 활자를 심을 수 있도록 조성한 일체식 판심이다. 따라서 판심 계선은 사용하지 않았다.

본문에 계선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활자 격리용으로 2.5~3mm의 계선 격자를 사용하였다. 『太平記』의 판식에는 無界로 나타나고 있지만, 잡목에 나타난 흔적을 보면 1.2~2.0mm 폭의 계선 격자를 사용하고 있다.

4.5.2 本文 字跡의 顛倒와 脫落

발견하지 못하였다.

4.5.3 校正의 失手

『太平記』 卷8 제29엽의 판심에 장차가 “三十”으로 잘못되어 있다.

4.6 綜合 評價

조판기술 수준이 상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2종(『論語集解』·『周易』)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기술 수준이 평범한 중급에 해당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중중급이다.

5. 要法寺版 古活字의 印出技術

5.1 墨色の 濃淡

5.1.1 全體의 墨色

전체적으로 묵색이 다소 연한 경우도 있지만, 진하게 사용한 경우가 많다. 묵색을 부드럽게 사용하여 진한 엽의 유무에 따라서 농담차가 좌우되었다(『論語集解』·『倭漢合運圖』(3판·6판)).

묵즙을 대체로 진하게 사용하였는데, 연한 엽(『指微韻鑑』) 또는 더 진한 엽이 보이거나(『周易』), 묵즙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 엽이 적지 않고, 연한 엽도 있어서 농담차가 다소 보이기도 한다(『文選』·『法華經傳記』·『倭漢合運圖』(초판·재판·4판)·『太平記』).

전반부에는 묵색을 연하게 사용하다가, 후반부에는 진하게 사용하면서 간혹 더 진한 엽도 있어서 농담차가 제법 보인다(『古註千字文』). 부분적으로 묵즙이 과하게 번진 곳이 있기도 하고(『倭漢合運圖』(4판)), 경중이 심하게 섞여 있기도 한다(『太平記』).

5.1.2 葉 간의 濃淡差

묵색을 부드럽게 사용하면서 간혹 너무 연한 문자 부분이나 진한 엽이 있어서

농담차가 보이고 있다(『論語集解』·『倭漢合運圖』(3판·6판)).

묵색이 간혹 진하거나 연한 엽이 섞여 있어서 엽에 따라 농담 차이가 약간 나타나고 있다(『倭漢合運圖』(4판)). 진한 편에 연한 엽이 있거나(『倭漢合運圖』(초판·재판)), 연한 편에 진한 엽이 있어서 다소간의 농담차가 보인다(『倭漢合運圖』(3판)).

전체적으로 진한 편인데, 연한 엽이 있지만 농담 차가 크지 않거나(『周易』), 약간의 농담차(『指微韻鑑』), 또는 연한 엽이 적지 않아서 다소 농담차가 보인다(『法華經傳記』·『太平記』).

5.2 墨汁의 변짐과 字跡의 깨짐

5.2.1 墨汁의 변짐

묵색이 부드러우면서 간혹 부분 변짐이 보인다. 다소 힘껏 인출하여 측면이 반영되기도 하고 변진 문자도 있다(『論語集解』). 묵색이 진하면서도 부분 변짐이 간혹 보이기도 한다(『周易』).

대체로 변진 엽이 거의 없어서 묵색이 깨끗하게 보인다(『倭漢合運圖』(6판)·『指微韻鑑』). 다만 필획 측면이 반영되어 변진 듯이 보이는 경우가 3~4엽, 필획 간의 묵즙이 변진 문자가 2~3자 정도 보이거나(『指微韻鑑』), 측면 반영으로 다소 굵고 진하게 변진 문자가 자주 보이기도 한다(『倭漢合運圖』(6판)·『太平記』).

변진 엽은 없으나, 필획 측면이 반영되었거나 필획 간에 변진 문자가 거의 모든 엽에서 보인다. 묵색이 연한 엽에서도 동일하다(『倭漢合運圖』(3판·4판)).

엽 전체가 변진 경우가 드물게 보이고, 부분 변짐은 간혹 보인다. 변진 문자는 적지 않다(『法華經傳記』·『倭漢合運圖』(초판·재판)·『太平記』). 부분 변짐이 시종 경중을 보이면서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文選』·『古註千字文』). 거의 엽 전체가 변지면서 정도도 심하거나(『古註千字文』), 먹색이 연한 엽에서도 힘껏 인출하여 요철 형성과 함께 필획 측면이 변질 정도로 반영된 경우가 자주

보인다(『文選』). 거의 목정이 된 문자도 있다(『文選』·『法華經傳記』·『倭漢合運圖』(3판·4판)·『太平記』·『古註千字文』).

5.2.2 墨汁의 쓸림

전체적으로 쓸림 현상은 많지 않다. 거의 예외적으로 판면의 목색이 뭉치고 물려서 균일하지 못하거나(『法華經傳記』), 쓸림 현상이 강하거나(『周易』), 판본 전체에 걸쳐서 심한 쓸림 현상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太平記』). 착묵의 양이 다소 과한 결과로 보인다.

5.2.3 字跡의 깨짐

착묵에 큰 어려움이 없는 목활자인 결과 자적이 깨진 경우는 없다.

5.3 雜痕과 雜墨

목색을 연하게 사용한 경우, 잡흔과 잡묵의 정도가 드물게 미량 보이거나(『論語集解』·『文選』·『倭漢合運圖』(3판)), 소량 간혹 보인다(『倭漢合運圖』(6판)). 목색이 진하면서도 드물게 미량 보이기도 한다(『倭漢合運圖』(초판·재판)·『周易』·『指微韻鑑』·『古註千字文』)

판면이 복잡한 관계로 간혹 보이기도 하고(『倭漢合運圖』(4판)). 진한 목색의 영향으로 크고 작은 잡묵이 간혹 보이거나(『太平記』), 적지 않은 경우도 있다(『法華經傳記』).

5.4 二重 印出

묵즙을 인판에 도포한 후 책지를 인판 위에 얹을 때, 부주의로 인하여 이중으로

인출된 곳이 몇몇 판본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중으로 뚜렷이 인출된 정도는 아니지만, 흔적이 감지되는 곳이 1~2곳 있다(『倭漢合運圖』(6판)·『周易』).

이중 인출이 1엽 있거나(『指微韻鑑』 서문 제4엽하), 드물게 또는 간혹 보인다(『文選』·『倭漢合運圖』(4판)·『太平記』). 이중 인출이 4~5곳에 보이면서, 흔적이 감지되는 곳도 4~5곳이나 있는 경우도 있다(『倭漢合運圖』(3판)).

5.5 印出의 方向과 強度

5.5.1 印出의 方向

책지의 후면을 살펴야 관찰이 가능한데, 분석을 할 수 없었다. 목즙을 진하게 사용한 판본이 적지 않으므로, 예상컨대 소장자의 허가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살펴보면 분석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5.2 印出의 強度

인출면을 육안으로 관찰하면, 인출 강도가 적당하여 필획 윤곽이 잘 반영되어 있고, 측면 반영은 거의 없거나 미세한 정도가 겨우 몇 자 보인다(『周易』).

다소 힘껏 인출하여 측면 반영이나 필획 간 목즙 번짐 현상이 꾸준히 보이거나(『古註千字文』), 판본 전체에 요철이 형성되면서 문자 필획의 측면이 반영될 정도로 강하게 압박하면서 인출하였다(『法華經傳記』·『倭漢合運圖』(4판)).

5.6 着墨의 均整度

연한 목색이면서 착묵 상태가 고르게 안정된 판본이 있다(『論語集解』).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착묵 상태가 균일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목색의 농담 차이로 인하여 판면이 안정되지 못하고 엽에 따라서 고르거나 번짐 등의 편차가

크다(『文選』·『指微韻鑑』). 판면의 목색이 뭉치고 물려서 균일하지 못하다(『法華經傳記』·『倭漢合運圖』(초판·재판)·『周易』).

문자 간 농담 차이도 간혹 보이고, 번짐과 쓸림으로 판면이 균정하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거나(『周易』·『倭漢合運圖』(6판)), 필획 측면이 반영되고 필획 간에 번진 문자도 꾸준히 있으면서 잘 인출되지 못한 연한 문자도 섞여 있어서 고르지도 못한 상태다. 인출기술이 그중 떨어진다(『倭漢合運圖』(3판)). 특히 쓸림이 강하게 나타난 경우도 있다(『周易』).

금속활자에 송연목을 사용한 것처럼 한 문자 내에서도 필획에 따라 진하고 연한 경우가 있어서 착목 상태가 균일하지 못하다(『倭漢合運圖』(4판) (2)特121-22의 卷하 제22엽하). 진한 엽에서도 착목이 안되어 연한 문자가 있고, 두 번 찍은 듯 불안정한 부분도 있다(『太平記』). 착목 상태가 심한 편차로 판면이 정돈되지 않은 느낌이다(『倭漢合運圖』(4판)·『太平記』). 다소 힘껏 인출하여 굵고 진한 문자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착목이 다소 과한 곳은 번짐으로 나타나서 목색이 과하게 진한 곳이 적지 않다. 반대로 목즙을 한 번 칠하고 두 번째 인출한 것처럼 목색이 연하면서 착목이 불안정한 문자도 간혹 보인다(『古註千字文』).

5.7 綜合 評價

목즙을 사용하는 인출기술이 미숙하여, 완성된 서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출 기술 수준이 상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고, 모두 중급에 해당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중중급이다.

6. 要法寺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진반적으로 조각술이 다소 떨어지고, 조판과 인출 기술 역시 미숙하다. 판본 전체에서 별다른 특징이 없을 만큼 평범한 수준이다. 앞에서 분석한 내용을 종합

하면 요법사판의 활자인쇄기술 수준은 중중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

7. 結 論

이상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要法寺版이란 京都에 소재한 要法寺에서 慶長 5년(1600)부터 寬永年間(1624-1643)까지 木活字를 이용하여 인출한 17종의 판본을 지칭한다.

潤轍書院版이란 京都 교외의 潤轍書院에서 慶長 9년(1604)부터 慶長 13년(1608)까지 木活字를 이용하여 인출한 6종의 판본을 지칭한다.

판식 상의 특징은 대체로 四周雙邊 또는 單邊, 有界, 10~12行17~19字와 25字 이상, 小註雙行, 大黑口, 三葉花紋魚尾, 一切式 版心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음각 활자·기호 활자·片假名 활자 등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2) 活字의 재질은 자양이 일치하지 않고 도각의 흔적과 목리가 역력하여 목활자임을 알 수 있다. 製作技術은 필서체의 필의를 표현하고 있으나, 문자의 미감은 충분히 세련되지 못한 수준이다. 오래 사용하여 보각한 경우도 있다. 기술 수준은 중상급.

(3) 組版技術은 字跡의 行列이 대체로 가지런한 편인데, 小字는 오차가 다소 커서 정연하지 못한 편이다. 빼뚫어진 문자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고, 墨色濃淡은 균일함에서 상당한 차이까지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기술 수준은 중중급.

(4) 印出技術은 전체적으로 목색을 진하게 사용하면서도 농담 차이가 약간 보인다. 墨汁의 번짐이 적지 않게 보이고, 잡묵 그리고 이중 인출은 다소 보일 만큼 균정하지 못한 수준이다. 기술 수준은 중중급.

(5) 印刷技術 수준을 종합하면 별다른 특징이 없는 중중급에 해당한다.

<참고 문헌>

1. 목록·해제·도록류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編.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漢籍目錄』.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79.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編.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和漢圖書目錄: 昭和14(1939)年2月 - : 昭和25(1950)年3月』.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73.

京都府立總合資料館圖書部編. 『京都府立總合資料館貴重書目錄』. 京都: 京都府立總合資料館, 1971.

慶應義塾大學圖書館編. 『慶應義塾大學圖書館藏和漢書善本解題』. 東京: 汲古書院.

慶應義塾大學附屬研究所斯道文庫編. 『慶應義塾大學附屬研究所斯道文庫貴重書蒐選圖錄解題』. 東京: 汲古書院, 1997.

(日本)國立國會圖書館圖書部編. 『國立國會圖書館所藏古活字版圖錄』. 東京: 汲古書院, 1990.

(日本)國立國會圖書館圖書部編. 『國立國會圖書館漢籍目錄』. 東京: 國立國會圖書館, 1987.

宮內廳書陵部編. 『(宮內廳書陵部)和漢圖書分類目錄(上·下·增加)』. 東京: 宮內廳書陵部, 1952·1953·1968.

內閣文庫編. 『改訂內閣文庫漢籍分類目錄』. 東京: 國立公文書館內閣文庫, 1971.

內閣文庫編. 『內閣文庫國書分類目錄』. 東京: 國立公文書館內閣文庫, 1974.

大東急紀念文庫編修. 『大東急紀念文庫貴重書解題』. 東京: 大東急紀念文庫.

大東急紀念文庫編修. 『大東急紀念文庫書目』. 東京: 大東急紀念文庫, 1955.

大東急紀念文庫編修. 『大東急紀念文庫書目第二』. 東京: 大東急紀念文庫, 1978.

東京大學總合圖書館漢籍目錄編纂委員會編. 『東京大學總合圖書館漢籍目錄』. 東京: 東京大學總合圖書館, 1995.

東洋文庫日本研究委員會編. 『岩崎文庫貴重書書誌解題』. 東京: 東洋文庫, 2000.

- 東洋文庫編. 「東洋文庫所藏漢籍分類目錄: 經・史・子部」. 東京: 東洋文庫, 1978・1986・1993.
- 東洋文庫編. 「岩崎文庫和漢書目錄」. 東京: 東洋文庫, 1934.
- 東洋文庫編. 「漢籍分類目錄: 集部(東洋文庫之部)」. 東京: 東洋文庫, 1967.
- 東洋學文獻センター連絡協議會編. 「東洋文庫所藏漢籍分類目錄」. 東京: 東洋文庫, 1967.
- 武田科學振興財團編. 「杏雨書屋藏書目錄」. 大阪: 武田科學振興財團, 1982.
- 武田科學振興財團編. 「杏雨書屋第34回杏雨書屋特別展示會 - 活字版の醫書・本草書 -」. 大阪: 武田科學振興財團, 2000. 5.
- 反町茂雄編. 「弘文莊古版本目錄」. 東京: 弘文莊, 1974.
- 反町茂雄編. 「弘文莊古活字版目錄」. 東京: 弘文莊, 1972.
- 反町茂雄編. 「弘文莊善本目錄」. 東京: 弘文莊, 1977.
- 靜嘉堂文庫編. 「靜嘉堂文庫國書分類目錄(正・續・再續)」. 東京: 靜嘉堂文庫, 1929・1939・1956.
- 靜嘉堂文庫編. 「靜嘉堂文庫漢籍分類目錄(正)」. 東京: 靜嘉堂文庫, 1930.
- 靜嘉堂文庫編. 「靜嘉堂文庫漢籍分類目錄(續)」. 東京: 國立國會圖書館管理部, 1951.
- 尊經閣文庫編. 「尊經閣文庫國書分類目錄」. 東京: 石黒文吉, 1939.
- 尊經閣文庫編. 「尊經閣文庫漢籍分類目錄」. 東京: 石黒文吉, 1934.
- 川瀬一馬編. 「高木文庫古活字版目錄」. 兵庫縣: 高木義一, 1933.
- 天理大學附屬圖書館編. 「天理圖書館稀書目錄和漢書之部第一・二・三・四」. 天理: 天理大學出版部, 1940・1951・1960・1998.
- 天理圖書館編. 「古活字本目錄: 附年間主要增加和漢書目」. 天理: 天理大學出版部, 1961.
- 天理圖書館編. 「善本畧録」. 天理: 天理大學出版部, 1997.
- 杏雨書屋編. 「新修恭仁山莊善本書影」. 大阪: 武田科學振興財團, 1985.
- 杏雨書屋編. 「杏雨書屋所藏古活字本目錄」. 「杏雨」第4號(2001. 4).

2. 저술·논문류

(日本)國立國會圖書館圖書部編, 『國立國會圖書館所藏古活字版圖錄』, 東京: 汲古書院, 1990. 408.

『大日本史料』 第12篇 13. 718-726.

木宮泰彥, 『日本古印刷文化史』, 東京: 富山房, 1975. 426-433.

船橋秀賢, 『慶長日件錄』.

田淵正雄, “新出の涸轍版『醫方大成論』をめぐって.” 『ヒブリア』 第115號(2001. 5). 34-39.

曹炯鎭, “古活字 印刷技術의 評價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25輯(2003. 6). 369-406.

曹炯鎭, “日本 叡山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書誌學研究』 第53輯(2012. 12). 85-110.

曹炯鎭, “日本の 駿河版은 朝鮮의 活字인가?.” 『書誌學研究』 第26輯(2003. 12). 1-23.

曹炯鎭, “日本 駿河版 銅活字의 製作過程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24輯(2002. 12). 89-129.

曹炯鎭, “日本 勅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書誌學研究』 第54輯(2013. 6). 103-136.

川瀨一馬, “要法寺版の研究.” 『書誌學』 第1卷 第1號(1923. 1), 4-22.

川瀨一馬, 『増補古活字版の研究』, 東京: 共立社, 1967.

